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행하는 자만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돌보지 않으셨고, 해보지 않은 일을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온갖 풍상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하셔서 주위에
어머님을 보려 오시는 분들이 많았

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셨고 당신

보다는 타인의 입장 먼저 생각하

셨고, 자식들을 가르침에 차별이 없었고 자식들을 교육함

에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치별을 한 적이 없고 몸소 실천으

로 보여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세상에 저를 알린 것도 저의 어
머님을 무심히 보낼 수 없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머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불肖한 제게는 넘을 수 없는
큰 분이었습니다. 제가 학회를 한 후 경비를 하면서 쉬는
날에는 어머님 집에 와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
님의 삶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추억했던 20여 일의 짧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문: 결혼하고서 '고사생 남편'이 계속 뜻을 펴도록 밀어
주고 믿어준 사모님의 지원도 크게 한몫했을 것으로 보이
는데요.

답: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답
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0대에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그야말로 불굴의 의
지로 혁설(蠻雪)의 공(功)을 이루고 보니 세간의 많은 사
람들이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역시 안동권씨구나'
하고 안동권씨의 저력을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안동권문
의 후손으로서 평소 느끼고 있는 자긍심 등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안동권씨라는
가문의 자손임을 잊지 말라고 교육하셨습니다. 언제나 어
른들에게 예(禮)를 다할 것을 당부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저의 자식들에게 권씨 가문의 자손임을 밥상에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집 안에 큰일이 있게 되면 7촌이 함
께 모여서 대소사를 함께 치르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
주곤 했죠. 이런 하나님과 권씨 가문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향(전남 곡성군 석곡면) 선산에 제
위로 7대 조부님을 함께 모신 가족 공동묘지에서 일 년에
두 번은 후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 공부하면서 일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을 1,2년도
아니고 30여 년 동안 마치 직업처럼 변호사 시험공부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있고, 읽어야 할 책은 많고, 몸도 피곤
해서 공부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일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답: 공부하고 책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책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
사를 지내고 집에 와서 잠시라도 책을 봤습니다. 시험공부
였지만 책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은 근심이 없었기에 책을
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덜한
경비원 생활을 많이하게 됐습니다. 경비는 주야 교대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고 책을 볼 수 있
는 시간이 많아요.

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릴적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나, 평생 아들 잘 되기만을 바
리시며 뒷바라지하신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답: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아버
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두 가지가 똑똑히 기억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지만 아버지로부터 욕
을 듣거나 제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위 주민들
로부터 뒷짐지를 인정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
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형제 자식들을 위해 당시를

문: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과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좋은 그리고 성실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
도 자리가 잡히면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범적인 존
중 받을 수 있는 로펌을 만들어 후배들이 함께 할 수 있도
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짧은 시절 가고자
했던 마음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 같습니다.

문: 끝으로 안동권문의 후배들, 특히 형편이 어려우면
서도 변호사 시험 또는 각종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후
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삶
은 길어 보이지만 너무 짧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만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결과도 없습
니다.

권진성 변호사는 100만 족친 여러분과 '지면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성자誠者
천지도 애天之道也, 성지자誠之者 인지도 애人之道也'라는
중용의 한 구절로 마무리 했습니다. 참으로 정성스럽고 진
실된 것은 하늘의 도리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
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
는 말인 듯 합니다.



어머니 고구임순 여사가 베를 위에서 베 짜는 모습

"긴 세월 묵묵히 학계 소식을 기다리셨던 어머님은 "잘
했다. 너는 해낼 줄 알았다"고 하시며 더없이 기뻐하시고
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고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다. 짧은 나이에
먼저 가신 네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있겠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머니!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학계 수기 중에서
편집국장 권행완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오선(權五
宣, 겸교공파 35
세) 대종회 고문
이 2월 20일 별세
하였다. 향년 92
세. 장지는 국립
현충원이다. 권
오선 고문은 대
종회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신정동 회관 마련을

비롯해 〈권문양사 찬란한 권문의 발자취〉라는 보학
자료를 발간하는 등 안동권문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
하였다.

특히 얼마전 장간호부터 보관 중인 안동권씨종보
를 대종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혹시나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망설
이던 차에 별세하였다.

대종회에서는 권오선 고문의 유지를 받아 보관
중인 종보를 인수하여 안동권씨 종보가 장간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슬하에는 권혁구와 혁민
2남을 두었으며 장남 권혁구는 ㈔부경글로벌 전무
이다.

동정



▲ 권칠승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2
월 5일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
했다. 권 장관
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
했다.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만나 '항상 소상공인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
다'고 밝히며,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른쪽 대표가 지난 2월 5일 재단본부
에서 유아용 마스크 5만1천장(5.1백
만 원 상당)을 기증했다. 권순영 대표
는 "나눔과 봉사 실천을 통해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독
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게 힘이 되고 싶다"며 코로나19로 인
해 힘든 이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
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2021년 1월
28일 권용복
전 국토교통
부 항공정책
실장을 제17
대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정부인사 발
령하여 2021년 2월 2일 오후 2시부
터 이사장으로 취임, 3년간의 임기
를 시작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대종
회 권순필 부회장의 세자 아들로 형
권용준은 프로그램, 프로종합관리
(주)와 250여 명을 수용한 해피나라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
다. 권용복 이사장은 경기도 여주에
서 출생하여 행정고시 33회로 국토
교통부에 공직 입문하여 물류정책
관,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
책실장을 역임하였다.



▲ 권복규 이
화의대 교수
가 보건의료
인 국가시험
발전에 공헌
한 공로로 보
건복지부 장
관 표창을 받았다. 권 교수는 제약사
장업에 기술 고문과 최고기술경영자
(CTO)로 참여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
진하고,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술을 다수 기술이전해 산학
협력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권오갑 현
대중공업 지
주·한국조선
해양 회장이 2
일 한국경영
학회 '대한민
국 명예의 전
당 전문경영인
부문'에 헌액됐다. 전
문경영인 부문은 올해 신설된 분야
로, 대한민국 '셀리리멘'의 신학의 상
징인 권오갑 회장이 영예의 첫 주인
공이 됐다. 1978년 28세의 나이로 현
대중공업 신입사원이 된 권 회장은
43년의 시간을 오로지 회사의 발전
과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오며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에까지 올랐다.



▲ 권미자 총
경이 지난 1
월 25일 장수
경찰 서장에
취임했다. 권
미자 서장은
전북 군산 출
신으로 전주기전여고와 전주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3년도에 순
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전주 완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남원서 경
무과장, 전북청 보안1계장 등을 역
임하였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 여러분의 소통매체이자 대변지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지는 100만 족친과 함께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종보 활성화 방안으로 족친님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1명 추천에 <10.000원>의 사례금을 즉시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독신청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입금 계좌 : 033237-04-006941(국민), 예금주 :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